

음악 고유성 · 다양성 ‘본향의 메아리’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8월 13~17일 57개 프로그램 69회 공연 마련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왕준, 이하 소리축제)가 ‘본향의 메아리’를 키워드로 2025 소리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소리축제에 따르면 8월 13~17일 5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일원에서 국립극장과 공동제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개막공연 <심청 PANSORI THEATER SHIM CHEONG>을 비롯해 판소리 다섯바탕, 산조의 밤, 해외초청 공연, 국내초청공연 등 총 57개 프로그램에 69회 공연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조직위는 이날 프로그램 발표회를 갖고 올해 소리축제의 의미와 변화, 주요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8월 여름 축제로 개최되는 소리축제는 전북과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제로서 세계 속에서의 소리축제 역할에 중점을 뒀다.

2025 키워드는 ‘본향의 메아리’로 음악의 디아스포라적 속성을 중심에 두고 음악의 이주와 정체성, 향수를 담은 음악 장르, 예술가, 그리고 현대적 재해석 등에 주목했다. 뿌리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음악의 다양성과 예술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음악들로 구성해 닻새간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담아냈다.

개막작은 심청의 효성을 강조하는 유교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물로 심청을 부각시킴으로써 기존과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국립창극단 단원과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심청 배경의 김을희 배우,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어린이를 포함해 총 130여 명의 출연진이 대거 참여한다. 소리축제의 간판급 공연 ‘판소리 다섯바탕’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본향의 메아리’를 키워드로 2025 소리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올해도 여김없이 찾아온다. <이난초의 흥보가>, <윤진철의 적벽가>, <염경애의 춘향가>, <남상일의 수궁가>, <김주리의 심청가> 등이다.

2019년 결성된 얼터너티브 판 밴드 ‘벌 내려온다’의 이남치, 국악과 현대 음악을 접목해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하고 있는 불후의 명곡의 히로인 송소희도 소리축제를 찾는다. 또한, 국내 최초 국악 크로스오버 경연 프로그램인 <풍류대장>에서 우승을 차지한 서도밴드 등 무더운 여름 축제 현장을 시원하게 적셔줄 라인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으로 폴란드 전통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코시의 <폴란드 전통노래 교실>과 관객이 가상공간에서 핸드폰으로 자신만의 동물을 선택하고 체험하며 전통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즐기는 XR판소리-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도 마련됐다.

폐막공연으로는 안은미 컴퍼니의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무대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김희선 집행위원장은 “국립극장과 소리축제 그리고 국제적 연출가가 함께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는 ‘심청’은 국제무대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작품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해석으로 새로운 심청을 소리축제에서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왕준 조직위원장은 “개막공연을 비롯해 올해 소리축제 무대에 오르는 많은 공연들이 평단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소리축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예술제를 넘어 세계 전통예술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김제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전시

이달의 소장품 전시 ‘신선로: 왕실의 화로에서 민간의 밥상으로’

김제시(시장 정성주)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은 ‘이달의 소장품’ 전시로 ‘신선로: 왕실의 화로에서 민간의 밥상으로’라는 주제의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17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내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되던 화로형 조리도구 ‘신설로(新設爐)’의 기원과 구조, 그리고 이 기구를 이용해 조리한 ‘열구자탕(悅口齋湯)’의 전통을 고찰한다. 아울러 이 조리도구가 민간에 전해져 ‘신선로(神仙爐)’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음식 자체를 지칭하게 되는 변화 과정을 조명한다.

‘신설로’는 조선 궁중의 잔치상에서 사용

된 독특한 화로형 기물이다. 이 안에 다양한 재료를 넣어 끓인 ‘열구자탕’은 『수문사설(摠理事略)』(1750년경)을 비롯한 왕실 의궤『원행음요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1795), 『자경전진작정례의궤(慈慶殿進饗禮儀軌)』(1827) 등에 등장하며 궁중음식으로 정착됐다. 이후 민간에서는 ‘신선처럼 먹는 화로’로 인식되어 ‘신선로’라는 명칭으로 불렸고, 20세기 초에는 기구와 음식 모두를 지칭하는 대중적 용어로 고착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전시는 신선로라는 음식과 기물을 통해 조선 궁중의 식문화가 민간으로 전승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편, 전통 식문화의 정체성과 미감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곽노재 기자

전북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가 공인 인증기관이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과 이용보장 기준을 충족했을 때 부여하는 인증으로, 이번 획득을 통해 재단은 사회적 책임 실천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전정희 원장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평등



하게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양성평등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홈페이지 품질 관리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플랫폼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전주지역 청소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이 지역 문화 불균형 해소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전주지역 청소년센터들과 손을 맞잡았다.

17일 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팔복예술공장에서 ‘문화향유 불균형 해소 및 시민주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최라기 대표이사를 비롯해 안이순 덕진청소년센터장, 김관우 솔내청소년센터장, 김법안 완산청소년센터장, 조정현 인

후청소년센터장, 김성철 전주청소년센터장 등 전주지역 5개 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시민 주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동 기획 및 실행 △청소년 및 지역 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기반 융복합 창작활동 발굴 및 실행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 사업 협력 및 자원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동문거리 상점과 시각예술 작품 전시 · 판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16일부터 7월 7일까지 시각예술 작품을 전시 · 판매하는 샵인샵(SHOP in SHOP)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샵인샵’은 전주시의 원도심인 동문거리의 카페, 소품샵, 음식점 등 상점 내부에 한지 조

형, 회화 등의 우리 지역 시각예술 작가의 작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동문거리 상점 8개소와 동문창작소 입주작가 11명이 참여하며, 상점 내에는 1점 이상의 작품이 전시 · 판매 된다. /장은성 기자

레일크루즈 관광열차 ‘해랑’, 남원에 정착

고품격 체류형 관광지 도약 기대

전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품고 달리는 레일크루즈 관광열차 ‘해랑’이 감성도시 남원에 정착한다.

남원시는 이를 단순한 정차가 아닌, 전통과 예술을 품은 고품격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고, 6월부터 시작한 해랑열차는 12월까지 총 56회 운영을 통해 약 7,000명의 프리미엄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다.

해랑은 코레일관광개발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고급형 관광열차로, 호텔급 객실과 프라이빗한 서비스, 전국을 잇는 테마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전국일주 2박 3일 정규 코스는 서울에서 출발해 첫 정차지인 남원을 시작으로 순천 · 부산 · 경주 등을 거쳐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운영된다.



남원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주 2회 정차하며, 대표 관광지인 광한투원과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감성 코스, 남원 전통 음식을 즐기는 맞춤형 중식 체험이 포함되고, 방문객들은 남원에서 깊이 있는 전통과 예술, 감성적인 여행을 경험하게 된다.

해랑 탑승객은 어린 자녀를 둔 가족 단위와 중장년층 이상의 프리미엄 관광객이 주류를 이루며, 문화적 깊이와 체험을 중시하는 트랜

즈에 부합해 남원의 정체성과 잘 어우러진다.

남원시는 이에 발맞춰 예술, 역사, 미식을 아우르는 체류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의 전환을 꾀하며, 단순히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정체성과 감성이 녹아든 고품격 콘텐츠를 통해 남원만의 매력을 전달하고자 한다.

시는 해랑 정차 사업을 통해, 고급 관광시장 유입, 체류형 관광지 전환,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등 다층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레일관광개발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남원형 프리미엄 관광의 상징 콘텐츠로 자리잡을 구상이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전통과 현대,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고품격 관광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